

2025 01호

# CERIK 하이라이트

1.15.

# SOC 결산서로 본 예산 집행 현황과 과제

- SOC 예산현액, 2년 연속 축소… 해운항만, 산단, 지역 및 도시 건설비 중심 감소세
- (자치단체이전비) 도로, 철도, 수자원 중심의 감소세
- (민간이전비) 스마트시티, 저탄소 시설 중심의 증가세
- 물가 및 건설공사비 수준 반영 시 SOC 예산 현액 급감 추세
- 경기 위축 대응 및 재정투자 효율성 위해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 노력 필요



**CERİK**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결산서에 나타난 SOC 분야 예산현액, 최근 2년 연속 감소

- 2010~2023년 결산서¹)에 나타난 SOC 분야 세출 예산현액²)(이하 SOC 예산현액)은 2010년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최근 2년 급격히 감소함.
  - SOC 예산현액은 2010년 46.3조원에서 2015년 50.4조원을 기록하는 등 46조원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1년
    53.4조원을 기록한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23년 42.6조원 수준을 보임.



〈그림 1〉 SOC 분야 예산현액(2010~2023)

자료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세입/세출 결산 현황(총액기준).

- 12대 분야 중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현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교통 및 물류 분야의 변동성에 따라 SOC 예산현액의 변동이 발생함.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현액은 2010년 13.2조원에서 2023년 9.9조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함.
  - 교통 및 물류 분야 예산현액은 2010년 33.1조원에서 2023년 32.7조원으로 소폭 줄었으나, 최근 2년 연속으로 감소함.
- SOC 예산현액의 2010~2023년 세출과목별 추이를 살펴보면 자산취득 및 운용과 전출금 등은 축소된 반면 이전지출, 물건비, 인건비는 확대됨.
  - 자산취득 및 운용은 건설보상비, 건설비, 유형자산, 무형자산, 융자금, 출자금,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예탁금, 지분취 득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설보상비와 건설비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그 외의 비목은 증가함.
    - ※ 건설보상비 '10년 2.4조원 → '23년 1.8조원, 건설비 '10년 9.6조원 → '23년 6.8조원, 출자금 '10년 1.2조원 → '23년 2.2조원, 예치금 및 유가증권 '10년 0.1조원 → '23년 0.8조원

<sup>1)</sup> 결산서는 당해연도의 중앙정부 모든 세출(예산, 추경, 이월액)을 반영함. 즉, SOC 결산서는 중앙정부의 SOC 분야의 모든 세출을 보여줌.

<sup>2)</sup>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액, 전년도이월액(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예비비지출액, 이·전용 등 증감액의 합으로 세출예산의 지출 한도를 의미함.

- 전출금 등은 각 회계 및 기금 사이의 거래, 계정 간 거래, 감가상각비, 당기순이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로(10년 7.7
  조원 → '23년 2.8조원), 도시철도(10년 1.2조원 → 2019~2023년 0원) 전출금이 줄면서 전체 전출금 등의 규모가 감소함.
- 이전지출은 보전금,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해외이전, 일반출연금, 연구개발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모든 세출과목이 증가한 가운데 자치단체이전(10년 47.3조원 → '23년 35.8조원) 과목은 큰 폭으로 감소함.

#### 〈표 1〉 세출과목별 SOC 예산현액 추이(2010~2023)

(단위 : 억원)

													(11)	ı · ¬ <u></u>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SOC	462,985	456,120	447,118	462,348	448,438	503,796	459,905	435,485	469,124	445,495	465,431	534,020	477,599	426,004
인건비	3,854	4,032	4,219	4,430	4,760	4,740	5,001	5,272	5,538	5,758	5,886	6,181	6,234	6,267
인건비	3,854	4,032	4,219	4,430	4,760	4,740	5,001	5,272	5,538	5,758	5,886	6,181	6,234	6,267
물건비	8,274	8,035	8,516	9,010	8,189	9,341	9,293	10,304	9,578	9,647	9,450	14,105	15,390	16,575
운영비	5,322	5,346	5,656	5,952	4,995	6,184	6,324	7,158	6,548	6,484	6,059	10,424	11,632	12,509
여비	128	135	148	166	174	177	174	185	177	183	147	169	182	208
업무추진비	29	31	36	38	36	38	37	37	34	37	36	37	36	35
직무수행경비	189	187	188	192	184	186	187	34	34	34	35	34	35	35
연구용역비	2,606	2,336	2,488	2,662	2,799	2,757	2,570	2,890	2,785	2,910	3,175	3,440	3,503	3,788
이전지출	110,293	110,020	117,525	126,806	121,386	137,452	122,462	113,829	95,048	106,769	127,558	148,474	151,682	128,772
보전금	122	236	92	71	128	1,196	356	343	432	869	919	1,964	647	609
민간이전	18,686	20,620	20,956	25,008	21,867	23,848	21,072	17,055	17,063	19,176	27,472	29,989	31,653	30,074
자치단체이전	47,327	42,108	45,872	43,762	38,253	39,120	34,661	29,590	31,576	35,250	40,763	45,956	51,312	35,816
해외이전	28	32	28	43	44	55	62	72	76	82	103	112	135	139
일반출연금	44,132	47,024	50,576	57,921	61,095	73,232	59,422	59,480	38,181	43,621	49,579	60,401	57,324	51,162
연구개발출연금	0	0	0	0	0	0	6,889	7,288	7,720	7,771	8,722	10,051	10,612	10,973
자산취득 및 운용	134,452	132,860	117,637	121,790	113,536	123,336	115,202	114,619	160,280	134,541	131,560	165,461	121,070	117,952
건설보상비	23,695	14,857	17,627	21,071	24,002	25,330	16,318	14,766	9,959	9,733	9,511	10,514	15,073	17,806
건설비	95,883	103,728	80,188	81,335	70,672	75,389	75,038	68,708	62,152	61,032	61,478	64,724	64,942	67,972
유형자산	326	558	491	463	391	341	353	361	463	518	598	614	882	945
무형자산	0	0	28	13	96	12	8	39	28	17	41	47	34	30
융자금	1,707	705	105	0	0	0	0	0	0	0	0	0	0	0
출자금	11,672	11,111	15,049	16,753	15,562	19,183	20,137	19,467	18,830	21,532	24,654	28,884	30,666	21,607
예치금 및 유 가증권 매입	1,170	1,900	1,935	2,155	2,813	3,082	3,232	5,200	5,447	7,323	7,594	8,261	7,700	8,457
예탁금	0	0	2,216	0	0	0	116	6,007	63,130	34,114	27,268	52,249	1,475	1,000
기분취득비	0				0		0	,	272	272	416	168	298	-
<sup>/시군귀득비</sup> 상환지출	1,609	1,374		1,084	1,025	_	2,290		2,468	2,413	3,303	2,908		165
상환지출	1,609	1,374			1,025	,	2,290		2,468	2,413	3,303	2,908		165
<sup>   6천시물</sup> 전출금 등	,		· '					_ ´	196,003	, -				
전출급 등 전출금 등	· ·	-				,	,		196,003			· ·	· ·	
예비비 및 기타	641	254	· '	243	288	,	,	208	209	226	184	270		-
예비비 및 기타		254		243	288				209	226	184	270		
	041	204	221		200	203	240	200	209	220	104	270	200	100

자료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세입/세출 결산 현황(총액기준).



# SOC분야 건설비… 해운·항만, 산업단지, 지역 및 도시 중심 감소세

- SOC 분야 건설비<sup>3)</sup>는 2023년 소폭 증가(전년 대비 3,030억원)하였으나, 2011년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2011년 10조 3,728억원 → 2023년 6조 7,972억원).
  - 건설비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산업단지, 수자원, 지역 및 도시 부문 모두에서 감소함.
    수자원 부문은 4대강 사업 이후 줄어들었으나, 최근 증가함. 산업단지(10년 6,329억원 → '23년 2,457억원) 및 지역 및 도시(10년 4,056억원 → '23년 2,423억원) 부문은 큰 폭으로 감소함.
    - ※ 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 '10년 6,329억원 → '12년 7,633억원 → '23년 2,357억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10년 3,901억원 → '13년 8,406억원 → '23년 1,702억원, 새만금개발 '10년 100억원 → '21년 2,520억원 → '23년 714억원
  -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철도('10년 66억원 → '23년 494억원), 물류 등 기타('10년 355억원 → '23년 818억원), 항공·공 항('10년 209억원 → '23년 2,097억원) 부문은 증가하였으나, 해운·항만('10년 1.4조원 → '23년 1.2조원)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임.
    - ※ 광역철도건설 '10년 3억원 → '22년 813억원 → '23년 340억원, 해샹산업육성 및 영토관리 '10년 64억원 → '23년 803 억원, 일반공항건설 및 관리 '10년 50억원 → '23년 2,015억원, 주요항 및 일반항 건설 '10년 5,349억원 → '23년 0원

#### 〈표 2〉 SOC 분야 건설비 부문별 예산현액 추이(2010~2023)

(단위: 억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건설비		95,883	103,728	80,188	81,335	70,672	75,389	75,038	68,708	62,152	61,032	61,478	64,724	64,942	67,972
교통 및 물류		57,480	54,000	51,729	58,338	52,218	58,651	62,725	56,971	50,796	49,625	49,132	50,611	51,264	57,219
	도로	42,476	40,789	38,647	44,310	38,987	44,150	46,383	40,605	34,719	33,479	32,694	33,795	35,135	41,789
	철도	66	85	184	151	176	221	231	236	305	269	381	631	924	494
	물류 등 기타	355	702	670	430	697	679	636	833	796	697	716	453	400	818
	항공·공항	209	195	220	355	586	1,042	1,602	1,108	966	949	703	1,985	2,351	2,097
	해운·항만	14,374	12,229	12,007	13,092	11,772	12,559	13,873	14,190	14,011	14,231	14,637	13,746	12,454	12,021
5	국토 및 지역개발	38,403	49,728	28,459	22,997	18,454	16,738	12,313	11,737	11,356	11,407	12,346	14,113	13,678	10,753
	산업단지	6,329	6,998	7,633	7,068	6,578	6,816	5,113	3,676	2,500	2,215	1,783	2,167	2,801	2,357
	수자원	28,018	36,015	12,659	7,464	4,683	4,729	4,334	4,439	4,011	4,230	5,459	5,764	5,604	5,973
	지역 및 도시	4,056	6,715	8,167	8,466	7,193	5,194	2,866	3,621	4,844	4,961	5,104	6,182	5,273	2,423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세입/세출 결산 현황(총액기준).

<sup>3)</sup> 건설비는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구성되어 있음.



## SOC분야 자치단체이전비… 도로, 철도, 수자원 중심의 감소세

- © SOC 분야 자치단체이전바<sup>1</sup>는 2017년 이후 증가세가 2023년 들어 큰 폭으로 감소함(2022년 5조 1,312억 원 → 2023년 3조 5,816억원).
  - 자치단체이전비는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물류 등 기타('10년 3,847억원 → '23년 6,158억원) 부문은 증가하였으나, 도로('10년 1조 5,882억원 → '23년 5,980억원), 철도('10년 1조 1,498억원 → '23년 8,327억원), 해운·항만('10년 1,595억원 → '23년 973억원) 부문에서 큰 폭으로 감소함. 세부적으로는 국도건설('10년 2,773억원 → '23년 250억원), 광역도로, 혼잡도로, 국가지원지방도건설 사업의 지자체도로건설지원('10년 8,653억원 → '23년 4,397억원), 위험도로구조개선,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의 지방도구조개선('10년 2,754억원 → '23년 0원)에서 크게 감소함.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이는 지역 및 도시('10년 6,244억원 → '23년 1조 2,296억원)부문은 증가한 반면, 산업단지('10년 1,171억원 → '23년 830억원), 수자원('10년 7,091억원 → '23년 1,251억원) 부문은 감소함. 세부적으로는 도시정책 ('10년 1,112억원 → '23년 7,718억원) 프로그램 예산은 크게 증가한 반면, 하천관리('12년 1조 900억원 → '23년 1,123억원) 및 산업단지 개발 및 지원('10년 1,171억원 → '23년 830억원) 프로그램 예산은 축소됨.

#### 〈표 3〉SOC 자치단체이전비 분야 및 부문별 예산현액 추이(2010~2023)

(단위: 억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7	치단체이전	47,327	42,108	45,872	43,762	38,253	39,120	34,661	29,590	31,576	35,250	40,763	45,956	51,312	35,816
교통 및 물류		32,821	28,324	27,483	26,088	21,214	22,460	19,384	16,181	15,894	15,044	20,440	26,416	30,155	21,438
	도로	15,882	13,305	11,790	12,404	9,031	7,900	6,795	6,334	5,198	5,231	6,605	8,767	8,370	5,980
	철도	11,498	9,717	10,265	7,781	6,672	9,464	6,921	4,750	5,574	3,828	5,864	7,355	9,566	8,327
	물류 등 기타	3,847	3,885	3,778	4,620	4,571	3,894	4,373	3,762	4,333	5,003	7,047	7,709	11,422	6,158
	항공·공항	0	0	0	0	0	0	2	0	35	40	0	0	0	0
	해운·항만	1,595	1,418	1,649	1,282	940	1,202	1,293	1,335	754	942	924	2,586	797	973
_	국토 및 지역개발	14,506	13,784	18,389	17,675	17,039	16,660	15,277	13,409	15,682	20,206	20,323	19,540	21,157	14,378
	산업단지	1,171	1,575	1,422	1,626	1,762	2,070	1,320	1,244	819	1,081	440	801	943	830
	수자원	7,091	6,658	11,182	10,158	9,421	8,410	8,232	6,851	6,537	7,835	6,360	3,556	4,077	1,251
	지역 및 도시	6,244	5,550	5,785	5,890	5,856	6,179	5,725	5,315	8,326	11,291	13,523	15,183	16,137	12,296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세입/세출 결산 현황.

<sup>4)</sup> 자치단체이전비는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교부금,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음.



# SOC분야 민간이전비… 스마트시티, 저탄소 시설 중심의 증가세

- SOC 분야 민간이전비<sup>5)</sup>는 2017년 이후 지속 증가함(2017년 1조 7,055억원 → 2023년 3조 74억원).
  - 민간이전비는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모든 부분이 증가한 가운데 물류 등 기타('10년 6,425억원 → '23년 1조 506억원) 부분이 큰 폭으로 증가함. 세부적으로는 물류산업지원, 수도권복합물류터미널건설, 화물자동차지원의 물류정책('10년 99.8 억원 → '23년 256.1억원), 민자도로건설 및 관리('10년 3,069.7억원 → '23년 3758.7억원)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도로운영, 도로보수, 첨단도로교통체계 등의 도로관리('10년 417.2억원 → '23년 1496.2억원) 프로그램 등에서 예산현액이 크게 증가함.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이는 지역 및 도시('10년 698억원 → '23년 3,258억원)부문은 증가한 반면, 수자원('10년 5.557억원 → '23년 3,386억원) 부문은 감소함. 세부적으로는 댐의 치수능력증대 및 안전관리의 댐 운영 및 관리('10년 4,174억원 → '23년 1,919억원), 국가하천정비를 지원하는 하천관리('10년 1,250억원 → '23년 501억원) 프로그램 예산은 크게 감소한 반면, 스마트시티 지원 등의 도시정책('12년 1조 900억원 → '23년 1,123억원), 온실가스 감축 등의 건축정책('10년 1,171억원 → '23년 830억원) 프로그램 예산은 확대됨.

#### 〈표 4〉 SOC 민간이전비 분야 및 부문별 예산현액 추이(2010~2023)

(단위: 억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민간이전		18,686	20,620	20,956	25,008	21,867	23,848	21,072	17,055	17,063	19,176	27,472	29,989	31,653	30,074
교통 및 물류		12,431	12,981	13,152	16,321	14,452	15,403	17,301	15,002	15,179	16,431	21,100	22,807	24,118	23,286
	도로	3,488	3,871	3,393	4,338	4,326	5,208	6,535	4,476	3,742	4,274	7,622	8,172	6,742	5,255
	철도	391	306	437	541	481	437	765	1,307	1,198	1,166	1,406	2,589	2,263	2,510
	물류 등 기타	6,425	6,824	6,721	8,555	6,734	6,283	6,779	6,328	6,990	7,694	8,077	7,551	10,451	10,506
	항공·공항	242	253	237	211	195	132	125	195	425	564	620	799	1,129	905
	해운·항만	1,884	1,727	2,364	2,675	2,715	3,343	3,096	2,697	2,823	2,733	3,375	3,697	3,533	4,110
=	국토 및 지역개발	6,255	7,639	7,805	8,687	7,415	8,445	3,771	2,053	1,884	2,745	6,371	7,182	7,535	6,788
	산업단지	0	0	0	0	0	0	164	0	0	250	289	303	153	144
	수자원	5,557	6,846	7,470	8,457	7,174	8,251	3,492	1,977	1,731	1,835	2,467	2,654	3,702	3,386
	지역 및 도시	698	793	334	231	241	194	115	76	153	660	3,615	4,224	3,680	3,258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세입/세출 결산 현황.

<sup>5)</sup> 민간이전비는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사업비, 연금지급금, 보험금, 이차보전금, 구호 및 교정비, 민간자본보조, 법정민간대행사업비, 고용부담금 으로 구성되어 있음.



# (총액기준) 2024년, 2025년 SOC 예산 확대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이전비는 최근 10년 평균 하회

- 2024년 SOC 예산<sup>6)</sup>은 2023년 예산 대비 6.7조원 증액되었으나, 2025년 SOC 예산은 0.7조원 감소한 47.6조원(총액기준)으로 확정됨.
  - 2024년도 SOC 예산은 GTX 등 핵심 교통인프라 적기개통 및 안전투자 강화, K-Pass, 미래 모빌리티 등 편리하고 혁신적인 교통환경 조성을 주요한 목적으로 편성하여 모든 부분이 2023년 대비 증가한 가운데 물류 등 기타(전년 대비 -301억원)와 산업단지(전년 대비 -281억원) 부문은 소폭 감소함.
  - 2025년도 SOC 예산은 전국 어디서나 '출퇴근 30분, 전국 2시간, 전 세계 1일' 생활권 실현을 위한 투자 확대 및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노후화된 인프라 개선, 수해 취약 도로·하천 정비 확대를 목적으로 편성하였으나 교통 및 물류(전년 대비 158억원) 분이는 증가한 반면, 국토 및 지역개발(전년 대비 -6,691억원) 분이는 감소함. 특히, 항공·공항(전년 대비 -1조 7,984억원), 지역 및 도시(전년 대비 -6,273억원) 부문은 큰 폭으로 감소함.

#### 〈표 5〉 2024~2025년 SOC 분야별 부문별 예산(총액기준)

(단위: 억원)

	2023년		2024년	면 예산		2025년 예산					
구분	2023년 국회확정액	국회 확정액	정부안	정부안 대비	전년 대비	국회 확정액	정부안	정부안 대비	전년 대비		
SOC	415,854	482,988	474,172	8,816	67,134	476,455	477,131	-676	-6,533		
교통 및 물류	319,095	368,163	364,848	3,315	49,068	368,321	368,562	-241	158		
도로	106,393	137,436	137,910	-474	31,044	145,778	145,929	-151	8,342		
 철도	41,236	40,936	40,174	762	-301	43,521	43,570	-48	2,586		
항공·공항	132,312	135,831	134,453	1,378	3,519	117,847	117,847	0	-17,984		
해운·항만	6,618	17,867	16,807	1,060	11,248	24,506	24,506	0	6,639		
물류 등 기타	32,536	36,093	35,504	589	3,558	36,669	36,711	-42	576		
국토 및 지역개발	96,758	114,825	109,324	5,501	18,067	108,134	108,569	-435	-6,691		
산업단지	3,361	3,080	2,980	100	-281	2,779	2,779	0	-302		
수자원	15,682	21,994	22,391	-396	6,312	21,878	21,886	-8	-116		
지역 및 도시	77,715	89,751	83,953	5,798	12,035	83,477	83,904	-426	-6,273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예산편성현황.

- SOC 예산의 2024~2025년 세출과목별 추이를 살펴보면 결산서의 추이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산취득 및 운용 과목은 축소된 반면 이전지출, 물건비, 인건비 과목은 확대됨.
  - 자산취득 및 운용 과목에서 건설보상비와 출자금이 2025년 크게 줄어듦. 건설보상비는 국도 및 산업단지진입도로 건설보 상비가 축소됨. 출자금은 고속도로건설 일반출자금이 감소함.

<sup>6)</sup> 결산보고서와의 연계성을 위해 총지출 기준이 아닌 이전지출 및 회계간 거래 등이 반영된 총액기준의 예산을 사용함.

• 이전지출은 2010년 대비 2024~2025년 예산은 증가하였으나, 2023년 축소된 이후 12.9조원 내외를 유지함. 특히, 자치단체이전비는 자본보조가는 축소하고 경상보조8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지만, 최근 10년 평균 수준(3.8조원)을 2024년 (3.6조원), 2025년(3.7조원) 하회함. 한편, 민간이전비는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이 위축되면서 축소됨.

#### 〈표 6〉 지출목별 2024~2025년 SOC 예산(총액기준)

(단위 : 억원)

			20	24		2025					
	2023 국회확정액	국회 확정액	정부안	정부안 대비	전년 대비	국회 확정액	정부안	정부안 대비	전년 대비		
SOC	415,854	482,988	474,172	8,816	67,134	476,455	477,131	-676	-6,533		
인건비	6,289	6,555	6,530	25	266	6,717	6,717	0	163		
인건비	6,289	6,555	6,530	25	266	6,717	6,717	0	163		
물건비	16,242	18,004	18,031	-27	1,763	18,315	18,322	-7	311		
운영비	12,483	14,041	14,031	10	1,558	14,700	14,706	-7	659		
여비	175	191	189	2	16	210	210	0	18		
업무추진비	35	37	37	0	3	40	40	0	3		
직무수행경비	35	35	35	0	0	38	38	0	3		
연구용역비	3,514	3,700	3,739	-40	186	3,328	3,328	0	-372		
이전지출	127,100	129,084	127,291	1,794	1,984	128,149	128,428	-279	-936		
보전금	207	108	108	0	-99	107	107	0	-1		
민간이전	28,818	27,018	27,003	15	-1,800	24,127	24,384	-257	-2,892		
자치단체이전	35,847	35,572	34,268	1,304	-275	37,396	37,411	-15	1,824		
해외이전	139	134	134	0	-4	123	123	0	-12		
일반출연금	51,132	57,849	57,627	222	6,717	56,487	56,487	0	-1,362		
연구개발출연금	10,958	8,403	8,150	253	-2,555	9,910	9,917	-7	1,507		
자산취득 및 운용	109,785	120,803	119,522	1,282	11,018	111,049	111,245	-195	-9,754		
건설보상비	14,062	18,124	19,259	-1,135	4,063	15,199	15,199	0	-2,925		
건설비	63,642	68,288	66,635	1,653	4,646	68,735	68,855	-120	447		
유형자산	813	784	777	7	-29	508	508	0	-276		
무형자산	49	43	43	0	-5	43	43	0	0		
출자금	21,626	23,609	22,853	756	1,983	17,742	17,818	-76	-5,867		
예치금 및 유 가증권 매입	8,457	8,455	8,455	0	-3	7,322	7,322	0	-1,132		
예탁금	1,000	1,500	1,500	0	500	1,500	1,500	0	0		
지분취득비	136	0	0	0	-136	0	0	0	0		
상환지출	165	6,083	6,030	53	5,918	2,567	2,567	0	-3,516		
상환지출	165	6,083	6,030	53	5,918	2,567	2,567	0	-3,516		
전출금 등	156,087	202,285	196,596	5,690	46,199	209,489	209,684	-195	7,204		
전출금 등	156,087	202,285	196,596	5,690	46,199	209,489	209,684	-195	7,204		
예비비 및 기타	186	173	173	0	-13	168	168	0	-5		
예비비 및 기타	186	173	173	0	-13	168	168	0	-5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예산편성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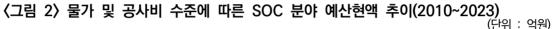
<sup>7)</sup> 자본보조금은 자본의 축적과 관련되는 토지매입, 시설건축, 자산취득에 지원하는 보조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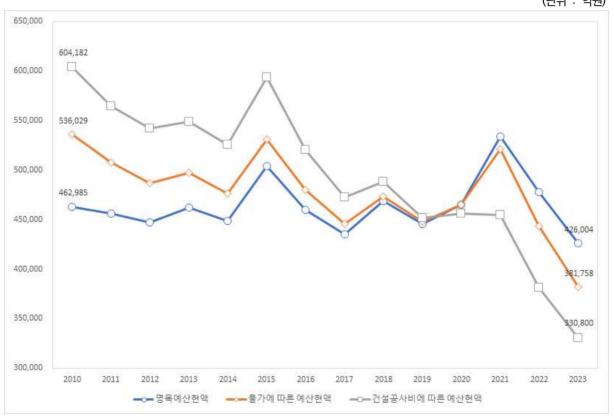
<sup>8)</sup> 경상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행하는 경상적 경비(인건비, 여비 등)에 대한 보조금임.

# D

# SOC 예산현액, 물가 및 건설공사비 수준 감안 시 급감

- 명목 SOC 예산현액을 2020년 기준 물가 또는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하여 변환한 경우 SOC 예산현액은 2010년부터 급격한 감소 추이를 보임.
  - 물가수준의 변화에 따른 SOC 예산현액은 2010년 53.6조원에서 2023년 38.2조원 수준으로 급감함.
  - 건설공사비 변동에 따른 SOC 예산현액은 23010년 60.4조원에서 2023년 33.1조원으로 약 2010년의 절반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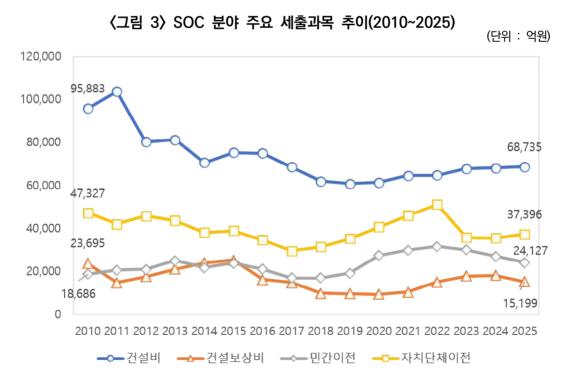
주 : 물가에 따른 변환은 소비자물가지수(통계청)를 사용하였으며, 건설공사비에 따른 변환은 건설공사비지수(한국건설기술연구원)를 사용함. 자료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세입/세출 결산 현황

- ◎ 명목 SOC 예산현액을 2020년 기준 물가 또는 공사비 수준으로 변환 시 SOC 예산현액은 2010년부터 급격한 감소 추이를 보임.
- 2023년 명목 SOC 예산현액은 2010년 대비 92.0% 규모이나, 물가 수준을 감안하면 71.2%에 불과하며, 건설공사비를 고려하면 54.8%에 머물러 중앙정부의 SOC 물량이 2010년 대비 50~70% 수준으로 축소됨.

# D

# 공공 SOC 투자 전반적인 위축세, 중장기적으로도 부정적

- 건설비, 자치단체이전, 민간이전 과목이 모두 둔화되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투자사업의 SOC 사업이 모두 단기적으로 축소될 전망임. 건설투자에 있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건설투자도 줄어들고 있어 건설산업 전반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임. 또한, 건설보상비도 줄어들면서 중장기적인 공공 SOC 투자도 축소될 가능성이 커짐.
  - 건설비는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구성되어 중앙정부의 건설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산과목으로 중앙정부의 SOC 투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SOC 분야의 자치단체이전비는 자치단체경상보조비와 자치단체자본보조비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부분이 자치단체의 토지매입, 시설건축, 자산취득 등과 연관되는 자치단체자본보조비로 자치단체이전비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지방정부의 공공
    SOC 투자도 축소될 전망임.
  - 민간이전비는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사업비, 연금지급금, 보험금, 이차보전금, 구호 및 교정비, 민간자본보조, 법정민간대 행사업비, 고용부담금으로 이루어져 민간투자사업, 민간위탁사업 등과 관련이 큰 비용으로 민간이전비는 과거보다 증가하 였으나, 최근 추세는 둔화세를 보여 민간투자 부분도 줄어들 가능성이 커짐.
  - 건설보상비는 토지의 매입 이후 건설공사가 발생되는 만큼 건설보상비의 축소는 향후 공공건설공사의 축소 가능성이 커짐.



주 : 2024년 이전은 결산보고서 자료이며, 2024~2025년은 국회확정예산임.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경기위축 대응 및 재정투자의 효율성 위해, (단기) 예산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 추경 검토 (중장기) 공공 SOC 투자 확대 및 민자활성화 필요

- 본 고에서는 추경예산 등을 반영한 국가재정의 총지출을 보여주는 결산보고서를 통해 중앙정부의 SOC 투자의 추세와 방향성을 살펴보았으며, 간접적으로 자치단체이전비 및 민간이전비를 통해 지방정부와 민간투자사업의 추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음.
- 공공 SOC 투자는 국가 부채비율 증가 등으로 재정투자 축소에 따라 서서히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경기 위축과 공공 SOC 투자의 축소와 맞물려 건설산업의 위기가 급격히 커지고 있음.
  - 그동안 건설경기의 위축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서로 별개로 이루어졌다면 현재의 건설경기는 민간과 공공 모두에서 축소되어 건설산업의 위기가 급격히 확산될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건설산업의 위기에 따른 경제 전반의 위축으로 다시 확산되는 악순환 고리에 빠질 가능성이 커짐.
- 건설산업의 위기 대응 차원에서 단기적으로는 매년 각각 약 1조원씩 발생되는 SOC 분야 이월액과 불용액을 사업집행 점검 등을 통해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공공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함.
  - SOC 분야 이월액은 연평균(2010~2023) 8,780억원에 달하며. 불용액은 1조 3,394억원에 달하고 있어 이들 이월액과 불용액의 집행관리만으로도 연간 2조원에 달하는 SOC 투자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최근 물가상승 및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SOC 투자는 축소된 만큼 추경을 통한 최소한의 재정투자 보완이 필요함.
-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확대 및 노후인프라 증가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는 SOC 투자 확대와 더불어 재정여력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엄근용(연구위원·kyeom@cerik.re.kr)

Global Knowledge Hub & Partner Leading Beyond the Future

CERIK 하이라이트는

건설 관련 정책·제도 동향을 제공하며 수시 발간됩니다. (비매품)

발행인:이충재

http://www.cerik.re.kr